장백산으로 '마음 치유' 려행을 떠나자

—초여름 푸르름으로 힐링 선사

초여름의 장백산, 아침해살 속에서 이도백하진의 거리는 점점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숲의 향기가 가득한 맑은 공기 속에서 웃음을 머금은 관광객들이 배낭을 메고 '마음 치유' 려행을 떠난다.

"우리는 이번에 특별히 긴장을 풀러 왔어요." 미인송 사랑의 숲(爱情森林) 입구, 장춘에서 온 대학생 왕연은 두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현재 장춘에서 장백산까지 고속철로 두시간 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들은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장백산을 찾은 것이다.

미인송은 일명 장백송으로도 불리는데 장백산 특유의 수종으로 하늘높이 우뚝 솟아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장백산관리위원회는 바로 이 의미를 주제로 미인송 사랑의 숲을 유유히 거닐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만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화추사오리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추사오리가 물속에서 노닐면서 물결이 출렁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야생동물 촬영을 즐기는 한 젊은이가 촬영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녀석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평소에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들의 자연생활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기자는 장백산 북쪽풍경구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천지 주봉 관광은 폐쇄되였지만 풍경구의 온천광장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볐다. 삼삼오오 떼를 지은 관광객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산보하며 서로의 려행 소감을 나누고 있었다. 온천수에 손을 씻으면서 온기를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가벼운 웃음이 넘실거렸다. "손을 씻고 나니 매끈매끈하고 좋습니다." 한 젊은 관광객은 "장백산의 온천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기묘한 힘이 있습니다."라며 감탄했다.

오후, 장백산 북쪽풍경구 취룡화산석림에 들어서자 협곡 사이에 즐비하게 늘어선 기석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고목이 한눈에 안겨왔다. 도시의 소음과 번화함이 없는 이곳에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너무 맑아 한모금만 마셔도 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대학 학생 장남은 연신 감탄했다. "석림에 들어서니 마치 모든 고민이 여기서 려과되는 것 같습니다."

장남은 친구들과 함께 장백산에 졸업 려행을 온 것이다. 바쁜 시험 준비와 론문 때문에 장기간 스트레스에 빠져있던 그들은 이곳에 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단다. 쟁백산은 독특한 자연적 매력으로 젊은이들이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백산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에서는 장백산관리위원회와 장백산관광주식유한회사 등 문화관광기업들이 산악운동을 관광객들이 자연을 탐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다. 협곡 시내물, 수만교(水漫桥), 절벽 커피 등 독특한 놀이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물하고 있다. 평화도보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숲속 도보를 즐기거나 전지형차(全地形车)를 몰거나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속도와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 취룡화산온천부락은 온천 건강양생 체험을 제공하고 왕관휴양호텔, 람경온천호텔과 림계온천은 사람들이 심신을 치유하는 리상적인 곳으로 되고 있다. 장백산 지북구(이도백하진)에는 오색찬란한 여름꽃들이 가득 피여나 화려한 그림을 만들고 운정시장(云顶市集)은 풍부한 문화체험과 특색음식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금대상가(金代商街),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력사가 유구한 장백산의 수공예 제작을 체험하며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장백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새로운 휴양지와 생태농장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다원화된 관광 레저휴가 선택을 제공하게 된다.

"장백산은 천지의 웅장한 자연경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와 심령 치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백산 당사업위원회 위원이며 관리위원회 부주임인 서붕은 장백산에서는 향후 다원화 휴가 형식을 적극 추진하고 치유 체험을 풍부히 하여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심호흡'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길림일보

정우현, 문명관광으로 고품질 발전에 동력

문명관광은 도시 이미지의 창구이다. 최근 정우현은 문명관광 권유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문명관광 리념을 실천하도록 시민과 관광객들을 인도하고 문명이 도시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인문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우현은 공공문화시설의 거점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도서관, 기념관, 무형문화재보호단위, 관광 명소 등을 기반으로 전 지역 문명 전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련의 문명 권유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시설의 전광판에는 문명 관람 홍보문구가 24시간 순환 재생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걸린 문명 안내판은 오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상시로 친절한 알림을 전하고 있다. 주요 문물보호단위 주변에는 〈이동 불가 문물보호단위 보호 강화에 관한 공고〉를 정성껏 배치해 문물 보호 의식과 문명관광 리념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했다. 하북성에서 온 관광객 소녀사는 "이곳은 관광 환경이 편안하고 질서정연하며 곳곳에서 문명의 새 열풍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관광 체험이 되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강산, 즐거운 려정'을 주제로 정성들여 기획한 '문명관광과 함께' 활동을 전개했다. 대중문예공연 행사 현장에서 현문화관은 가무,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예술형식을 통해 정우현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로 보여주었다. 이 밖에 현문화관광국과 현문명판공실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현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명관광 제안서〉를 배포하고 문명관광 지식을 설명하며 문명관광 행동을 권장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문명관광 의식을 갖추도록 관광객들을 점진적으로 유도했다. 이를 통해 문명관광이 모든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행동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명관광+문명실천'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며 《문명실천 관광가이드》를 혁신적으로 내놓았는데 이 가이드는 관광지 관광안내와 함께 문명관광 리념을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뉴미디어 플래트홈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빠른 전파 속도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문명관광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교통수단 LED 디스플레이에는 문명관광 공익광고를 순환 재생해 문명 홍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및 관광지 관리 기업과 협조해 관광지 매표소를 써비스와 홍보가 일체화된 종합 플래트홈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명관광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문명관광 리념이 전방위, 다채널로 뿌리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거점 홍보에서 활동 선도까지, 리념 전파에서 실천 실행까지, 정우현은 일련의 문명 권유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우수하고 더 편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 길림일보

삼합촌 고목커피숍, 또 하나의 변경 명소로

8개 성에서 온 11명 변경 수호 서부자원봉사자들이 경영

G331 길림 구간을 달리다 보면 이 변경선의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서 조화를 이룬 산과 하천, 수려한 풍경이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충격으로 안겨온다.

차량이 룡정시 삼합진 삼합촌에 서서히 들어서면 삼합통상구 고목역참(古树驿站)이 시야에 들어온다. 5월 30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 역참은 G331 변경 자가용관광의 새로운 필수 방문지로 급부상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역참의 11그루 황양고목은 굵은 나무줄기, 무성한 나무잎으로 변경선 세월의 변천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

역참에 들어서면 짙은 커피향이 풍겨오는 속에 곳곳에서 조선족 문화를 커피에 녹여낸 흔적을 볼 수 있다. 역참은 관광객들에게 막걸리커피, 송이버섯커피 등 특색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맛으로 고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관광객 우씨는 "오늘 G331 국도를 따라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을 찾았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변경 풍경을 감상하고 인문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삼합통상구의 고목역참 대상은 총투자가 500만원, 총부지면적이 6,009평방메터에 달하는데 실외 고목카페, 옥상카페, 탁자카페와 실내 문화창의제품 전시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고목역참 대상 책임자 곽우걸은 이 대상은 국문, 망강각, 우주캡슐 민박 등 관광지를 절묘하게 련결하여 완전한 변경관광 코스 페쇄 루프를 조성, G331 자가용 관광객들에게 레저, 방문, 문화체험 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관광, 문화체험과 애국주의교양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실외 고목카페는 자가용 관광객들에게 캠핑카 야영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레저 장소를 제공하고 옥상카페는 '집'을 콘셉트한 독창적인 설계로 최적의 관광 촬영 선택지로 부상했다. 옥상카페에서는 삼합통상구가 지척에서 보이고 산속의 망강각, 우주캡슐 민박 등 관광 명소가 한눈에 들어온다. 두그루의 황양고목 가운데 위치한 탁자카페는 부부가 화목하고 일심동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이곳은 변경 수호 강연의 중요한 진지로 되여 '당, 정부, 군대, 경찰, 대중, 기업' 6위 1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실내 문화창의제품 전시구역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특색 제품이 가득 전시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의 상표는 두그루의 황양고목에 하트를 더한 조형으로 강인하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황양고목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한 동시에 한마음한뜻으로 변강을 건설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린다는 의미와 다음 세대에 대한 간곡한 기대를 담고 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의 2층은 민속문화전시장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핵심으로 변강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는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고 관광자원 홍보, 민속정취 전시, 농특산물 진렬, 선진인물 사적 소개 등 기능을 제공하며 '변경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주제 방문지로 관광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8개 성에서 온 11명의 변경 수호 서부자원봉사자들이 의기투합해 경영하고 있다." 곽우걸은 이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변강을 수호하고 한평생 한가지 일에만 충실'하는 정서를 실제 행동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삼합진당위 서기 박호범은 "삼합통상구 고목역참 대상은 삼합진의 새로운 문화관광 방문지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삼합진에서 사상정치교양 활동을 펼치는 장소로 되여 중소학생과 당원간부들에게 애국주의교양 체험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